

영구임대주택 780호 직접 입주자 선정

LH전북본부, 군산 나운·익산 부송·전주 평화·정읍 수성 등 4개 지구... 내달 8일까지 온라인 청약신청 가능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27일부터 전북 노후영구임대주택 4개 단지 780호에 대해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시·도 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준공 후 15년 경과)에서 6

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 공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개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입주자격을 완화해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노후영구임대주택 단지별 모집호수는 익산 부송1 252호, 전주 평화 200호, 군산 나운4 178호, 정읍 수성1 150호로 총 4개 단지 78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익산 부송1·전주 평화는 월평균소득 70%이하, 군산 나운4·정읍 수성1은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입대기간에 따른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만만원, 자동차 2,468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App: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하여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다만, 현장방문 고객의 분산을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늘려(평균3일~7일) 진행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2m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 19의 감염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정보를 '한눈에'

공단,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개설 제도·기금·전문가 시선 등 6개 메뉴로 구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www.npsnair.kr)'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각의 SNS 채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국민연금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동영상, 인포그래픽, 칼럼 등)를 신선했던 콘텐츠 플랫폼(국민연금 온에어)을 통해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온에어'는 △국민연금 소식 △국민연금 BASIC △국민연금 제도 △기금 △전문가 시선 △영성 갤러리 등 6개의 메뉴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소식에선 보도자료와 이벤트 등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 BASIC에선 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미래가입자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도 메뉴는 국민연금의 장점과 노후준비 방법들이, 기금 메뉴에선 기금현황과 스튜어디스 코드와 같은 중요 정보를 알려준다.

각종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전문가 시선 메뉴도 마련됐다.

영성 갤러리에선 미래가입자의 토론 영상 등 타깃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도 볼 수 있다.

앞으로 공단은 '국민연금 온에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사나 연령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온에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방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홍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렵고 딱딱한 국민연금제도를 누구나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 기업지원과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 지원 마케팅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2020 글로벌 마케팅 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Youtube, TikTok, Facebook 등 최신 뉴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해 바이어와 해외 소비자를 직접 발굴 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팅 콘텐츠, 웹드라마·다큐 형식의 브랜드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본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대응, 비대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창출하게 되며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신규 판매 플랫폼 진출(Amazon, Qoo10 등)을 타진하게 된다.

또한 경진원 FTA활용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해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MCN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에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본 사업은 현재 경진원과 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jtrade.jonbuk.go.kr)을 통해 5월 10일까지 모집 중이며 2단계 평가를 통해 25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콘텐츠 제작비용의 90% 한도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의 종류와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동영상의 경우 런타임 3분 이상 제작되어야 하며 음성 또는 자막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1개월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 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의 하나다.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를 통해 인증샷 등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7일 미래에셋과 손잡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에셋 상상플러스펀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착한펀드' 나온다

전북은행, 미래에셋과 손잡고 '상생플러스펀드' 출시 은행 창구 등 통해 가입 가능 개인연금으로도 이용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7일 미래에셋과 손잡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에셋 상상플러스펀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미래에셋 상상플러스펀드'는 글로벌 채권, 국내의 주식, 글로벌 인컴(이자, 배당) 자산에 분산투자해 높은 단기성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투자위험을 효과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전북은행 창구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세계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서유석 대표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는 망설여지고, 정기에급이 채권형 펀드의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

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중위험·중수익(펀드위험 3등급)펀드"고 안내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미래에셋 상상플러스펀드는 전북은행의 판매보수와 펀드의 운용보수 30%를 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세상을 만드는 전북은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유통사업 협동조합, 농가 농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군산 대야농협과 협약

신동진쌀 판매 적극 지원

전북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두완정)은 27일 군산 대야농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대야농협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동진쌀 판매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산하 4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난달 26일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전북지역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유통사업협동조합은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됐다. 조합은 작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공동마케팅을 위



한 방송영상제작, 병동 등 공동장비 설치 등 공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두완정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야농가와 중소기업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전북유통사업협동조합이 앞장설 것이다"라며 "오늘 협약이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간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모범적인 사업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무주덕유산CC, 2020

춘·추계 골프패키지 판매

청정고원에 자리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2020 춘·추계 골프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오스트리아풍의 이국적인 호텔리조트나 가족호텔에서의 숙박과 조찬, 36홀/18홀 라운딩이 포함되어 있다. 1팀 4인 기준으로 1박 36홀 패키지는 1인 기준 주중 20만6000원, 주말 30만8000원이며, 1박 18홀 패키지는 1인 기준 주중 12만1000원, 주말 18만3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빼어난 절경 속에 호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가 청정 고원 골프장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홀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설계하였으며, 해발 900m의 고지에 위치한 청정 야생 고원골프장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먹고...

만지고... | '쌀하고 놀자' 즐기고...

농진청, '모내기 밥상' 등 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쌀을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가구 형태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주식으로서의 쌀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쌀의 용도를 넓히고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체험 프로그램은 쌀을 보고, 만지고, 요리하고, 먹어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신체·정서 발달을 돕고 쌀의 영역을 '식문화'에서 '생활문화'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쌀 체험 프로그램은 '모내기 밥상', '쌀 그리기와 맛볼' 등 대상별(영유아, 초등학생,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 26종과 교사(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강좌 꾸러미로 구성되어 있다.

'모내기 밥상'은 모내기 중 새참으로 맞볼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들어보며, 벼가 자라는 과정도 함께 알아가는 활동이다. '쌀 그리기와 맛볼'은 맷돌로 직접 쌀가루를 만들고, 검은 도화지에 풀을 묻혀 쌀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의 오감을 자극해 표현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쌀 체험용 재료인 쌀가루, 떡살, 쌀점토 등은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현장에서 프로그램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밌는 쌀 체험여행' 함께 떠나볼래? 책자도 발간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5월 초부터 볼 수 있다.

김진숙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장은 "쌀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며, 노년층에게는 건강한 정서 함양과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대구·경북 코로나환자 모두 '완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서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던 대구·경북의 중증증 및 중증 환자들이 모두 완치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에는 따르면, 그동안 전북대내 발생환자 4명과 대구·경북의 중증증 이상 환자 13명을 치료해 왔으며, 대구 경북에서 온 13명의 환자를 비롯한 15명의 환자가 완치판정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온 환자 중에는 고령의 위중 환자를 비롯해 폐렴증상이나 기저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통해 완치됐다. 가장 오래 입원한 환자는 3월 18일 대구에서 전원된 환자로 총 38일간의 치료 후 완치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퇴원했다.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 이창섭(감염내과) 실장은 "환자들의 상태에 맞게 집중치료와 대증치료를 병행해 온 것이 환자의 완치에 큰 도움이 됐고 힘든 치료과정을 무사히 견뎌준 환자 및

동료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의료진 모두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직후부터 환자안전에 최우선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객 전면 통제, 출입구 제한, 선별진료소 운영, 국가격리치료병동 가동, 국민안심병원 운영, 의심환자 임시 격리병동 운영,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보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대구경북 환자가 급증하면 사투리는 고위험 중증환자의 치료병상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대비 중증치료병상 운영에 참여해왔다.

조남천 병원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병원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체 출입객 통제, 의심환자 선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위생 관리(손위생, 기침예절 등)와 원내 코로나19 증상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